

2023.10.8.(주일) 열왕기하5:1-8 「고쳐주소서」 김양재 목사님

1.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2.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 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4.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5.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7.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줄 알라 하니라
8.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버지, 이 세상에 고침 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 “고쳐주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부탁을 잘하세요? 부탁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바네사 본스가 실험을 했는데요. 직장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상사를 이제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 도움을 청하라고 그러면서 두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한 그룹은 “도움을 청하는 게 아주 부끄럽고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전혀 게의치 말고 부탁하라.”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업무를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할 테니까 언제든 부탁하라.”고 했어요. 자, 부탁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았을까요?^^ 부끄럽고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개의치 말고 부탁하라는 말을 들은 직원들이 부탁을 훨씬 더 많이 했다고 해요.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가 모자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탁도 마음이 겸손해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람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쉬운 부탁이지만 나아만 같은 유명한 장군에게는 너무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고쳐주소서”를 해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쳐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두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쳐주소서!”를 외치려면,

1. 첫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1-3절)

1.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아람은 다윗 왕이 점령한 뒤 오랫동안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뒤 유다 왕 아사왕 때 이스라엘 왕 바아사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다급한 아사는 아람왕 벤하닷 1세에게 큰 재물을 바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열왕기 다 보면은 하여튼 예수 믿는 유다도 맨날 다른 나라에.... 맨날 여기는 미국에 부탁하고~ 여기는 소련에 부탁하고~ 중공에 부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적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왕 때는 아람 왕 벤하닷 2세가 침략하여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아합은 결국 그 사람과의 전쟁 중에 전사를 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은 그 오으리 왕조 때로 상아궁 짓고 가장 강성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의 그 시리아인 사람은 그 이스라엘군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바로 이 벤하닷 2세 때 공을 가장 많이 세운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나 나아만 자신은 몰랐지만 그 사람이 이긴 것은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을 지금 1절에서 열왕기 기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나병도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시작과 끝이 다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장수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얻은 큰 용사였지만 그의 마지막 소개 말은 ‘나병환자’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편견을 피할 수가 없고,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을 지금 이제 달고 살아야 하는데... 이 병 하나의 무게가 앞에 나온 모든 찬란한 수식어의 무게보다 이제 훨씬 무거운 거예요. 몸을 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몸을 치기 전에는 안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까짓 거 뭐 천억 있다가 900억이 없어도 아직 100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한 결과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도 큰 용사인데, 너 나병 환자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대단하게 모든 것을 쌓아놓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죽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맷동 잘린 나무라는 거예요.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우리가 다 들으라고.

그런데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 온 어린소녀 노예가 있었어요. 2,3절이에요.

2.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 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끄는 아람 군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노예로 쓸 사람을 또 많

이 잡아 왔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아주 총명해 보이는 한 어린 소녀를 나아만 자신의 그 아내의 몸종으로 삼았어요.

이 ‘어린 소녀’를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그랬었죠, 개역한글에. 그러니까 나 이가 적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계집종’이라 이름도 없어요. 크고 존귀한 나아만과 정반대죠. 게다가 나아만은 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장군이지만 이 소녀는 사로잡힌 노예예요. 나아만은 많은 군대를 호령하지만, 소녀는 여주인에게 수종듭니다. 한마디로 나아만은 강자고, 어린 소녀는 약자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도와야 합니까? 나아만이 어린 소녀를 불쌍히 여겨야겠죠?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이 어린 여종이 나아만을 생각하잖아요. 나아만의 아내-자기 여주인- 여주인이니까 나아만의 빨래방에서 섬기다가 이 나아만이 갑옷으로 철저히 감추고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그 주인의 나병을 알게 되었겠죠. 그죠? 진물이 나오고 하니까. 나아만이 그 나는 새도 정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 소녀는 그걸 봤어요. 근데 이때 한 이 소녀가.. 여러분도 고통당할 때 딱 한 사람을 생각하죠? 생각합니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바로 엘리사예요. 아마도 수넴 여인의 그 아들 살린 일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선지자인데 나병쯤 못 고치겠어요?!’ 소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여종이 언제 엘리사를 만나봤겠어요? 만난 적이 없어도 한 성령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같이 오래 있어도 나를 위해 구원해주시는 이 구속사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수의 적국으로 잡혀가도 구속사가 믿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나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이 훨씬 믿어지는 사람이 많겠죠.

하지만 이 소녀에게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납치해 온 원수예요. 어쩌면 부모가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아람 군대의 손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병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해도 싸다고 여겨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 소녀이고, 여종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뭘 알아지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온 세상은 몰라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원수 사랑 이야기잖아요. 원수의 죄보다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¹⁾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이제 알게 되면 내가 가장 극형을 당해야 될 사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범죄자를 용서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이 세상의 윤리적인 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늘 “나는 죄 없고 너는 용서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감정, 진영논리가 없어지질 않아요. 늘 이 땅의 옳고 그름으로 “복수! 복

1) (디모데전서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수는 나의 힘이다!” 이러면서.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파되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가 전해지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이 말을 들을 때 맹렬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것이 요새 너무 극한 상황이 돼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게 맨 처음보다 지금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들 “네가 나를 알아?!” 그래서 온 나라가 상대 진영을 “죽여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인데요. 이제 나라 안에 상대 진영이 다 주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도 같은 형제 나라죠. 그러나 늘 총구를 겨누니까 우리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총을 쏘면 안 된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분별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한 어린 소녀처럼 18세에 학도병으로 자원해 6.25전쟁에 참전하시고, 지금도 아내를 직접 돌보시는 90세가 넘은 박수문 집사님 이야기.

수요일에 이 90세가 넘으신 박수문 집사님의 그 6.25 용문산 전투 영상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를 보고 많은 걸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의 정말 밀리는 전쟁 중에 승기를 잡은 유명한 전투의 주인공이 우리들교회에 계셨더라고요. 18살 때 소총도 쓸 줄 모르는데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전쟁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 생생한 그 당시의 용문산 전투 장면이 남아있는 희귀한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살아남은 분이 거의 없어서 주인공으로 이 박 집사님이 그 영상을 찍으셨어요. 나라에서 요청해서. 근데 이제 우리들교회에 오신 지 20여 년이 돼오는데, 이렇게 글쎄 나라를 살린 주인공으로 영상까지 찍으셨는데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공군의 그 인해전술. 그냥 무조건... 그거를 말로만 들었는데 사진으로 직접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사님의 수색 소대원들도 다 죽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3명인데 나이가 다 많아서 지금 이분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이게 웬일인가 말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때 살아남으셨는데 지난주 끝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70년을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는데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유공자로 초청을 받았대요. 70년 만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은인을 몰라봐요. 그죠? 생명을 내걸고 전쟁을 해서 살렸는데...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지금 신이 나셨어요. 유공자 임원도 하시느라고 너무 바빠 지금. 같은 민족끼리 이게 웬일인가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미 70대 초반에 오셨는데 목자를 하시고, 지금 9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90이 넘은 이 나이에 사이클을 타시고, 또 휠체어를 타고 땅기는 아내인 그 문 집사님을 계속 병원에 모시고 다니시고, 혼자 밥하시고, 수발하시고, 장 보시고, 마트 가시고, 유공자 모임에도 직책을 맡으셔서 너무 바쁘신 거 있

죠?! 그래서 이분 만나려면 너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부가 다 훈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모두 우리들교회를 비롯해서 다 장로, 권사를 만드시고. 자기가 믿음이 참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들교회에 오셔서 이 구속사를 들으시고, 자기 죄를 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보는 사람이 영육 간에 건강하시죠.

학도병을 그렇게 지원할 정도로 애국자시잖아요. 믿음의 적용을 잘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이 늙은 나이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 딸이 살고 있는 대구에도 교회를 개척해달라고 저한테 그 바쁜 시간에^^. 그냥 또 이 자녀들 교회 걱정도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너무 동안이시고, 너무 차돌멩이 같으셔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한 가지가 10가지구나! 애국자는 이렇게 집에서도 최고구나! 생색이 하나도 없으시고요. 장보고, 마트 가고, 밥하고, 맨날 병원에 밀고 가시고! 자녀들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혼자서 수발을 다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이클을 날마다 타신대잖아요. 존경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20년 동안 제가 처음 알아드렸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유공자 대우를 했다니까 저하고 똑같으네. 저도 진짜 이렇게 몰랐네요. 너무 은혜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걸 알리고 싶으셨을 텐데, 이제 90도 훨씬 넘었는데 너무 안 알아주니까 이제 지지난주에 여기 왔는데 이 CD 하나 주고 가셨어요. 이거 하나 보시라고.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한 번 전쟁 나가서 영웅이 되면 얼마나 내가 이 전쟁 얘기만 하겠어요? 내가 이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여튼 전쟁은 이겨야 해요. 거기서 질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슬퍼요. 그죠? 이 전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이 몸종으로 사로잡힌 소녀가 이 위대한 장군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살길을 알려줍니다. 곁은 화려하지만 속은 나병으로 지옥을 살던 나아만 부부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 위대한 사람입니까?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나병 때문에 괴로운 큰 용사 나아만보다 위대한 사람은 원수조차 궁휼히 여겨 살길을 알려주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무명의 소녀 아니겠습니까! 소녀의 존재나 상황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죠.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믿음! 심지어 원수에게조차 차별 없이 복음을 알려주는 그 믿음!!이 위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소녀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휴, 박수문 집사님 얘기가 정말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90년을 해로 하신 거잖아요. 해로하시고 어떻게 90 평생 이렇게 와이프를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진짜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90이 넘었는데 자녀들 다 있는데 내가! 내가!! 보살핀단 말이죠. 다들 지금 분하죠.^^ 저는 그 전쟁에 학도병

을 자원했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너는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내가 나가겠다!!”고. 소총도 쓸 줄 모르는데.. 소총 한번 쏘고 전쟁했다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어린 소녀 같아요.

■ 적용 질문이에요.

Q. 크고 용사이지만 감추고 싶은 나병은 무엇입니까?

Q. 나는 사형수라고 생각합니까, 경범죄라고 생각합니까?

Q. 이런 말 들으면 맹렬한 분노가 올라옵니까?

Q. 여러분은 내 처지가 초라해도 힘든 내 옆의 사람에게 우리들교회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참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복음을 전할.. 뭐, 복음까지 갈 게 뭐가 있어요. 교회도 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을 못 전하면은 내가 입이 짧지만은 그러면 내 삶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들교회가 왜 좋은지..

자, “고쳐주소서!”를 외치려면,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복음에 전파자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위대한 사람은 근데 작고 초라한 여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 두 번째는 나병 같은 고난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4-5절)

4.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리하더이다 하니

3절과 4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린 여종이 전한 복음을 들은 부인이 나아만에게 그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들은 나아만은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자녀들의 말도 얼마나 무시할 때가 많나요. 당연하잖아요. 아이잖아요. 하물며 어린 여종의 말이라면 믿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강대국 아람의 모든 의술이며 주술을 다 동원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인데 그 나병을 고칠 선지자가 적국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기 힘든 말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이 말을 왕이나 모사가 아닌 자기 집 빨래방에서 일하는 여종이 해줘요.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참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렇게 루게릭병에 평생 시달려도 그 사람이 예수 못 믿었어요. 부인이 예수 믿었는데도 그 부인하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용사라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택자가 돼서 나아만 부부가 이 말을 믿습니다. 또 뭐 나아만 부부가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믿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람의 대장군이잖아요. 무슨 믿음을. 이방 나라인데..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 사람이 복음을 믿었어요? 아니죠. 나병이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나병이야말로 낫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는 이 부부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고 하는 그 낫고 낫은 마음을 갖게 했어요. 나아만 장군 부부는 이 나병 때

문에 낫아졌는데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으로 낫아지지 못한 것 같아요. 돈이 있고... 진짜 그래서 이거 정말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여기까지 낫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왕에게 나아가서 소녀가 전한 복음을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어쩝니까? 5절 6절이에요.

5.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고쳐주소서.” 벤하닷 2세는 아합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두 번이나 크게 패했고, 그 중 한 번은 아합에게 거의 항복하다시피 목숨을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은 것도 아람과의 전쟁이었죠. 그러니 벤하닷 2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감정이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끼는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다는 보고를 들은 아람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기꺼이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옷 10벌만 아니라 은 350kg, 금 50kg을 보냅니다. 이렇게 금 가치로만 따져도 40억이 넘는데 지금으로 치면 약 한 100억 정도 되는 예물을 바리바리 싣고 보냈어요. 친서를 동봉해 가지고 적국 왕에게 “우리 나아만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나아만도 믿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또 아람 왕은 이게 또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겠어요? 아람 왕이 의리가 있어서 나아만을 살리고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람 왕에게 나아만은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게 나아만의 공이라고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 해줘야 되요. 지금 나라의 반이라도 줘야 되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는 나아만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비록 왕이지만 나아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없었다면 아람 왕이 뭐 하러 생각하기도 싫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엄청난 선물을 보내 부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 그러면, (예수가 있어도 그래요.) 끝까지 우리는 내가 잘할 건 끝까지 잘하지만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어요.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내가 믿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속았으면 100% 여러분 잘못이에요. 알았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딴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나한테 100% 잘해도 여러분은 늘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과 분별은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고, 돈이 없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몸이 고장나고, 계획한 일이 틀어지는 이런 육이 무너지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또 내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 생각과 내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산다'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 본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서도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살아.' 그러니까 상사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 살면 '내가 야~ 돈이 없어서 여기서 커피나 따르고 앉았느냐?'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당해 낮은 마음이 될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나병이 있었기에 그 소녀가 알려준 복음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했듯이, 아람 왕도 나아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며 도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셨어요? ★남녀 간에! 직장에! 나한테 분에 넘치는 선물을 할 때는 일단 의심을 딱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공짜 받다가 여러분들도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이거 다 경영학 교과서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나병 같은 고난이 있을 때, 낮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힘든 사람, 또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또 이제 그 복음을 듣는 마음과 귀가 열리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아무 문제없이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은.. “아휴, 나는 고난도 없이 그냥 예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마음이에요. 인간이 100%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 고난 없이 예수 잘 믿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악은 어떡하고요? 사람은 100% 죄인인데... 나는 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고난이 없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에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에서 목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다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정말... 진짜 요새 (민수기 큐티) 다단과 아비람... 진짜..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보다 위의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지가 뭘데 나보다 올라가?” 이런 거.

모세가 미리암하고 아론하고의 싸움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고 그러잖아요. 식구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니까 백성들은 “저 가족도 못 지키는 사람이 뭘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삶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의 이 뒷면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타적으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나는 혼자 예수 잘 믿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반역하는 마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따라서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올 때 “어찌 이런 일이!!”라며 슬퍼

하거나 화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플 때 약 먹을 시간 되면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약 먹을 시간 되었다!!” 이걸 잘 지켜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것이 찾아오면 그냥 영적인 약을 먹을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알람인 줄 아시기를 바라요. ‘알람이 울렸네~ 약 먹자!! 무슨 약?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의 약!!’ 이거 먹으라고 이 고난이 왔구나.’ 큐티할 시간이죠! Question Time이에요. ★고난에 대해 주님께 묻고, 나에 대해 묻고, 주님의 뜻에 대해 묻는!! 말씀의 약을 여러분들이 너무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져서, 형식적으로 약을 먹는 척하고 안 먹어대니까... 할 수 없이 더 심한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약 먹으라고!! 할렐루야!! 약 좀 먹어요! 약!! 아휴, 아픈 사람은 약 좀 잘 먹어요. 아셨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아! 말씀의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목장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 오긴 와도 그냥 고난이 없으니까 앓아있기도 힘들고 다 너무 힘들어. 그냥.

■ 적용질문이에요.

Q. 고난이 축복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Q. 모든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분별하십니까?

고난이 축복임을 깨달아 “고쳐주소서!”를 외치면,

3. 세 번째는 옷을 찢는 탄식에도 응답하십니다. (6-8절)

6.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7.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줄 알라 아니라

아람 왕은 이제 이스라엘 여호람에게 많은 선물과 함께 편지를 보내요.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해요. 아람 왕은 “당신의 나라에 있다는 선지자를 불러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람에서는 주술을 베푸는 제사장들이 다 왕의 부하이고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잡혀 온 어린 소녀도 아는 일을 왕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모르잖아요. 모두가 아는데 누구만 몰라. 제일... 그런 일 많죠. 그죠? 하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여호람은 아람 왕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도 못합니다. 그저 아람 왕이 불가능한 요구를 자기에게 던지며 전쟁의 명분을 쌓는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고쳐? 이거 완전히 시비 거는 거잖아!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이렇게 외치면서 그냥 그 좋은 새 옷을 박박 찢어요. (나는 ‘저거 아깝겠네~’ 아휴~ 그 당시로 봐도 아까워~아까워~) ‘옷을 찢는 것’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절망과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저는 일평생 사실 아무리 화가 나도 옷을 찢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옷을 팍!팍! 찢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죠? 옷을 찢어본 사람 한 번 손들어보세요. 빨리 손들어~ 왜 안 들어요? 찢어본 사람 없어요? 아!여기 두 사람 드네. 천국 갈지어다^ ^ 솔직하잖아. 여러분은 찢어놓고는 가만히 있네~~ 약 먹으시기를 바래요. 약.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렇게 마음속 격동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 소리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나아만의 집에서 수종 드는 어린 소녀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개천에서 .. 개천을 팔때부터 비를 주시고~ 지금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쳐 주시고~ 기름을 ~~ 이러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여호람은 그것만 지나면 꿈쩍도 하지 않아요. 바로 왕하고 똑같아요. 이제 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는데 그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엘리사가 처리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건을 겪었는데 끝까지 자기감정에 사로잡혀서 기뻤다~ 슬펐다~, 옷을 새로 해입었다~ 찢었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분노조절장애가 고쳐지질 않아요. 그의 눈에는 엘리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의 귀에는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들리지 않아요.

여호람은 오늘 깊이 생각해서... 지금 깊이 생각했대요!!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들이 시비 걸려 올라왔다는 거를 알으래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서 전쟁 일으키려 왔다고 생각했대요. 이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오버 센스하면 안 돼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건데... ★**깊이 생각할 걸, 깊이 오해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수가 너무 많아요.** 이 깊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꿀 수가 없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의처증에, 의부증에 난리가 났죠.

믿음의 결단으로 깊이 생각해서 화제를 드리는 - 이 태우고, 희생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의- 적용으로 나가야 하는데 오직 앉으나 서나 이해타산만 생각하니까 의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또 사람은 또 의심하라고 그랬죠? 그거하고 지금 이해타산을 생각해서 하는 의심하고 다른 거예요. 구원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하는 건데 내가 의심이라는 단어를 지금 썼어요. 그죠? **구원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 거지,** “사람은 그냥 어휴~ 저 사람도 착하고~ 이 사람도 착하고~” 그거는 “나 바보” 그 얘기 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저께도 누구를 만났더니 “제가 너무 지혜로워졌어요~ 이 큐티하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지혜로워졌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졌어요?

■ 우리들교회에 오신지 1년 된 성도님이 ‘깊이 생각하여’ 우리들교회와 목사님을 검증하셨다는 나눔.

글쎄 이제 딱 1년 된 어떤 분의 나눔이에요. 다들 우리들교회에 오시는 남자들은 일단 저를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 전에 온 임재택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비판하고 의심했다고 그러니까 ‘저게 다 내 얘기인데!’ 그렇게 공감들을 하

시더만요.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저 목사님이 하시네~~’

그러니까 이분도 ‘열왕기하 흉년 때 말씀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선지 생도가 제사장 그룹도 아닌데 어떻게 가족들이 흉년으로 배곯고 있을 때 그렇게 말씀 듣겠다고 거기 사로잡혀 있었나?’ 그게 이제 양육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 저도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의 나눔, 이사 문제, 부부 갈등, 자녀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공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왜 내가 이런 정말 지질한 얘기를 들어야 되나?’ 고민을 한 한두 달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듣다 보니까 어머니가 전화했을 때 어머니가 삶의 애환을 3시간씩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혈기 안 부리고 듣기는 한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 3시간을 그냥 듣는 거. 이게 목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sit-down하고 있어서 엄청난 내공이 쌓여서 이렇게 듣는 거죠.)

말씀에 대해 객관적, 보편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 가끔 억지스럽다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이단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잔잔하게 끌어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과장되지 않고, 또 열매를 맺는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판교에 가보면 빛 없이 그 교회 건축을 성도들이 했다니.. 또 문서 선교, 방송 선교로 그 목사님의 검증된 건 그럼 뭘까? (우리는 뭐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은 물질에 대한 유혹은 없을 것 같고, 고난도 소소한 시집살이에서~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그걸 막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전 세계 고난 받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면 그것이 검증 기간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검증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부부가 검증될 수 있는 것은 인생 과정에서 참아내고 부부로서 사는 부분과 결혼식 등 보편적 틀에서 인정되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다.

제 고난을 소소한 시집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요즘은 검증이 되어서인지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고, 큐티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분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주 분석을 잘하셨어요. 여기 이스라엘 왕 여호琥보다 훨씬 나오세요. 왕이면 뭐 하겠어요? 근데 1년 만에 이런 장족의 발전을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여호琥의 이 탄식조차 들어주세요. 8절입니다.

8.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적국의 장관이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수없이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는 아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가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영혼은 다 선교지인 거 아시죠? 불치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사명은 하나도 없고 탄식만 하고 있으니 “네가 무시하는 적국의 나아만이라도 믿게 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거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이렇게 왕을 야단치며 가는 길이 이게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늘 생명을 내놔야 되잖아요. 내 옆에 나아만이 곳곳에 있어요. 다들 영적으로 죽은 나병 환자고, 다 밑동 잘린 나무처럼 다 죽을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이렇게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치다가 물이 떨어졌을 때도 엘리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거기 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여호람이 엘리사를 생각하지도 찾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왕의 옷을 찢으며 탄식했다는 말을 또 듣습니다! 엘리사가 늘 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왕에게 뭔가 구하려고가 아니라 왕 한 사람이 나라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한 사람 위정자 세워주시길 기도하잖아요? 근데 최고 강국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린 소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영논리로 그렇게 싸워야 되겠어요? 우리의 왕이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하도 안 되니까 소녀를 적국에 보내서 그 나아만을 전도하게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도리어 거꾸로 지금 전도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슬픔. 그래서 ★엘리사가 끊임없이 왕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아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병을 고칠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지만 이제 자기를 만나면 그 소식이 진짜인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호람에게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옷을 찢어요? 나아만의 나병 고치는 일은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인데 손 떼고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왜 혼자 짊어지고 그렇게 있으면 이제 옷 찢을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안 되면 “아! 내가 기도해야지! 공동체에 물어봐야지!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주문을 좀 걸어보세요.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여호람의 옷을 찢는 탄식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여호람이 이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람을 이뻐하실 이유가 어딨어요? 벌써 심판으로 죽게 해도 ... 100번 죽게 해도 그만인 악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속사의 계보를 부정하고 떠난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바로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여호람의 향방 없는 탄식조차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목장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떠나고 있잖아요! 여호람의 이 탄식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슬픔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 처음으로 직장에서 No를 하며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니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마을지기 집사님의 나눔

우리 한 집사님이 이 S그룹의 문화가 No를 말하는 문화가 아닌데 내가 그 일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No라는 대답을 처음 했다. 안 하던 걸 처음 하니 불안이 막 올라와가지고 회사를 가는데 막 못 들어가겠더라. 늘 예스만 말하다 교회에서도 마을이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왔는데 이제 승진도 누락되고 업무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이 상황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근래에 승진이 못된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두 달 마음대로 놀았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놀았다. 땅땡이도 쳐보고, 야동도 보고, 십일조도 떼어먹고, 불멍은 9시 30분이라 못했고, 주식도 하고 두 달간 놀았는데 공허함과 불안함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남았다. 인생의 두 달간 멋대로 살아보고 다 해봤는데 즐겁지도 않고 안 채워지더라.

그래서 아들이 춤을 추는데 연습이 끝나고 아들에게 물어봤다. "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뻐요!" 기뻐서 교회도 가고, 기뻐서 큐티도 하는 거라는 이 아들의 말에 ... 난 뭘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이제껏 달려온 것 같다. 아들이 "아빠, 큐페 가면 얼마나 기쁜데 아빠도 큐페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른들은 큐페 없나?" 라는 아들의 말에 나도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때부터 모범 학생으로 모든 시키는 일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니까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모범생도 우리들교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자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탄식도 응답하시는 줄 믿어요! 이분은 목장 안 빠지세요? 뭐든지 열심히 나오시고, 지금 마을님이시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너무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잘 나가다가 이런 일도 있네요. 그

래서 붙어 있어야 깨달음을 주세요. 아들이 어린 소녀같이 아버지에게 위대한 복음 가루를 지금 뿐여댑니다. 우리 아버지 고쳐주소서! 대기업에 다녀도 “고쳐주소서!” 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나아만처럼 빨리 밑바닥을 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할 이유예요. 물론 교회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한 영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하신 통로예요. 하나님은 자연도 아니고, 다른 책도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알려주신 것처럼 가족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어떤 엘리트 집단도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렵고 저렇고 때마다 불평할 수는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때마다 분량대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쳐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만 하면 되요! 믿음 없는 우리의 외침과 탄식과 불평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우리들교회 표어는 늘 「붙어만 있으면 수지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가정도 안 깨고, 회사도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들교회 현수막은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합니다.』 이거 붙었어요. 좋죠. 전도하시기 바래요.

■ 적용 질문이에요.

Q. 내 힘으로 하려다가 옷을 찢으며 절망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나홀로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Q. 공동체에서 탄식했을 뿐인데 응답받은 적은 있습니까?

말씀을 맺어요. “고쳐주소서!”는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해요. 위대한 사람은 스펙이 아니라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들교회는 위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자발적인 지도자 동무들이 정말 깔렸어요! 깔렸어! 꼭 정말 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병 같은 고난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붙어 있어도 날마다 옷을 찢어대지만은 그런 탄식에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 1. 고통의 명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빙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2.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3. 교만한 맘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4.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뵈오려고 주께로 옵니다♪

기도제목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 같은 불치병이 있다면 이 소녀처럼 복음을 전해주 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병 같은 고난이 축복임을 알고, 그래서 또 알지만 또 우리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다 “어찌하여!” 하며 옷을 찢는 탄식에도 우리는 고쳐주시기를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연약과 고치지 못할 영육의 질병과, 중독과, 거짓말, 사기, 시기, 분노 이거 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악을 직면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구 절벽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도저도 아닌 우리가 옷을 찢고 탄식해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이제 이번에도 지방선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큰 용사인 것만 자랑하고, 갑옷 속에 나병을 꼭꼭 숨기고 수치스러워서 죽음이 즉각즉각 다가오는 데 내놓지를 못하는 저희들의 그것이 연약함인지, 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가족이 살고 다 사는데 그런 부끄러움은 어디까지 가지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생명을 내놓고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생명 내놓고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도 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담대함이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의 두려움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떠나지 않는 교회 가운데에서 옷을 찢고 탄식하는 이런 약함과 또 이제 악함과 이 모든 것이 있지만은 떠나지 않고..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나고, 공동체를 안 떠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이 탄식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 응답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탄식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지체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형수인 우리는 이 세상 모두를 선교지로 여기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소서. 우리의 암과, 오장육부의 병과, 이 고혈압과, 관절염과, 모든 뼈와 정신병과, 우울증과, 조현병과, 조울증과, ADHD와, 거짓말과, 시기, 질투와, 사기와, 경쟁심과, 공명심과, 무기력. 이 모든 질병들 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질병을 물려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려갈지어다! 물려가라! 이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오늘 수많은 질병에 우리가 손을 대었습니다. 내 아픈 부분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 암수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정신병. 아버지 하나님, 이 내장의 질병, 밖의 질병 모두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셔야 되겠나

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위정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위정자를 주여, 허락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병의 고난이 죽 축복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신양고백으로 드린 현금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도록 저희들의 가치관이 구속사적으로 바뀌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업, 회사, 공부,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주님, 기름을 철철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약] 2023.10.8.(주일) 열왕기하5:1-8 「고쳐주소서」 김양재 목사님

한 심리학 실험 결과,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는 부끄러움-내가 뭘가 모자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탁도 마음이 겸손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부탁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아만 같은 유명한 장군에게는 너무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고쳐주소서”를 해야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쳐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두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쳐주소서!”를 외치려면,

1. 첫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1-3절)

-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한 어린 소녀처럼 18세에 학도병으로 자원해 6.25전쟁에 참전하시고, 지금도 아내를 직접 돌보시는 90세가 넘은 박수문 집사님 이야기.

Q. 크고 용사이지만 감추고 싶은 나병은 무엇입니까?

Q. 나는 사형수라고 생각합니까, 경범죄라고 생각합니까?

Q. 이런 말 들으면 맹렬한 분노가 올라옵니까?

Q. 여러분은 내 처지가 초라해도 힘든 내 옆의 사람에게 우리들교회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2. 두 번째는 나병 같은 고난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4-5절)

Q. 고난이 축복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Q. 모든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분별하십니까?

3. 세 번째는 옷을 찢는 탄식에도 응답하십니다. (6-8절)

- 우리들교회에 온지 1년 된 성도님이 ‘깊이 생각하여’ 우리들교회와 목사님을 검증하셨다는 나눔.

- 처음으로 직장에서 No를 하며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니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마을지기 집사님의 나눔

Q. 내 힘으로 하려다가 옷을 찢으며 절망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나홀로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Q. 공동체에서 탄식했을 뿐인데 응답받은 적은 있습니까?